

어려운 때다. 장기화된 불황으로 닫힌 것은 비단 소비자들의 지갑뿐만이 아니다. 내 가족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다. 하지만 여기, 자리아타(自利利他) 정신을 강조하며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직장불자들이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불자회, 구로승무사무소법우회, 교사불자연합회, 선재미술의료회 등 바쁜 직장생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자 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직장불자들을 살펴본다.

● 소외된 이웃에 밝은 웃음을

구로승무사무소법우회(회장 우철재)는 작수달을 '봉사활동의 달'로 규정하고 구로구 내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노력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독거노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불편한 곳은 없는지,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를 파악해 생필품 지원과 가전제품 수리하기, 안마해드리기, 말벗 해드리기 등 홀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고 있다. 또한 1년에 두 차례씩은 특별 나들이 행사를 진행한다.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재정적인 이유로 등으로 외출이 쉽지 않은 노인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서로의 정을 나누는 자리이다. 지난 10월 14일에는 관내 독거노인 100여분을 모시고 영종도와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일일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밖에도 구로승무사무소법우회는 격월로 여성 자제정사를 방문해 인근 텃밭 가꾸기, 지역 노인들 목욕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우철재 회장은 "봉사하지 않는 신행은 있을 수 없다"며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소년소녀 가장 등 관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27일엔 창립 1주년을 맞는 인천중부경찰서불교회(회장 이만영)는 인천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에게 식량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노력봉사도 하고 싶지만,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시간이 내기 어려워 매월 1만원씩 회비를 걷어 이웃들을 위한 생활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중부경찰서불교회는 지난 추석에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라면, 옷 등의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6곳에 라면 40상자, 의류 200여점, 타올 150장, 의약품 등을 보냈다.

청내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경 등도 불자회에 적극 합류하는 만큼,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우리은행 서울불자회(회장 정진호), 성북구청불자회(회장 정후시), 경기지방경찰청불자회(회장 김성조), SBS 법우회(회장 허원재), 한국국방연구원·국방품질관리소 흥릉법우회(회장 이종인),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 안양지역회(회장 유경선) 등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노력봉사활동과 생활용품 지원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불황이 마음을 단게 한다고?

직장불자 뜨면 웃음꽃 '활짝'



불행속 직장불자들은 나눔과 봉사의 실천에 나서 따뜻한 세상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진은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 선재마을 의료회의 봉사활동 장면.

소외지역 생필품 지원·의료봉사 등 활발

일터불심 신행·포교 키워드 '나눔' 정착

●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약사 보살들

의료봉사의 대표주자는 단연 선재마을의료회(회장 김광수). 선재마을의료회는 '보살행, 보시행, 의료행'을 좌표삼아 매주 일요일 서울 봉은사에서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진행하고, 매월 한 차례씩 의료시설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순회진료를 벌이고 있다. 10월 30~31일에는 양평 사나사로 수련회겸 순회진료를 떠난다.

특히 봉은사에서 펼치는 진료봉사는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내과진료는 물론, 한방과 치과진료까지 진행해 호응이 높다. 이밖에도 미아리성가복지병원, 은평구 도터병원, 적십자병원 등과 연계해 보다 정밀한 진료까지 책임지고 있다.

1997년에 창립된 경희의료원불자회(회장 권혁운)는 지난 7년간 의료원 내 불교자원을 봉사회와 간병봉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매년 3~4차례 대한가수불자회와 연합해 병원 로비에서 '환자 쾌유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고, 기회가 닿는 대로 지역 복지관들과

사찰 등을 찾아가며 '자비 의술'을 펼치고 있다.

전국지부별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가정행편이 안 좋은 학생들의 보조학습과 특수장애 학생들의 학습 및 외출을 돕는 학습·노력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산사체현과 문화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교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재 보호'라는 새로운 봉사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포항교사불자회는 지난해 청소년문화재교실을 개설하고, 사이버 청소년 신행상담과 불교공부방을 운영해 많은 청소년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오희창)는 전국 43개 교정기관을 통해 재소자 상담과 불우한 재소자에게 영치금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삼천포화력본부 반야회(회장 김세권)와 고리원자력발전소 고리반야부인회(회장 유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자회(회장 임병현) 등도 빠르른 올해 안에 봉사활동을 불자회 내 사회활동으로 정례화 할 방침이다.

● 봉사과 접목한 포교·교회활동

대한불자기수회(회장 김활선)는 매주 일요일을 '군법당 찾아가는 날'로 정하고 군인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과 상담봉사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매주 첫째주 1사단 신병교육대, 둘째주 1군단 특공대, 셋째주 3사단 신병교육대, 넷째주 1군단 포교대 등. 스케줄표만 들여다봐도 대한불자기수회의 활동양상을 짐

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상시적으로 교도소와 병원 등을 찾아 심신이 병든 이들을 노레로 치료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활선 회장은 "가수들이 찾아와 공연을 한다고 하면, 평소 범당을 멀리하던 이들도 전보다 쉽게 범당을 찾는다"며 "같이 찬불기도 부르기도 신행교백 등 범당을 나누는 사이사이 청년들 가슴에서 불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국지부별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가정행편이 안 좋은 학생들의 보조학습과 특수장애 학생들의 학습 및 외출을 돕는 학습·노력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산사체현과 문화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불교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재 보호'라는 새로운 봉사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포항교사불자회는 지난해 청소년문화재교실을 개설하고, 사이버 청소년 신행상담과 불교공부방을 운영해 많은 청소년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오희창)는 전국 43개 교정기관을 통해 재소자 상담과 불우한 재소자에게 영치금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삼천포화력본부 반야회(회장 김세권)와 고리원자력발전소 고리반야부인회(회장 유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자회(회장 임병현) 등도 빠르른 올해 안에 봉사활동을 불자회 내 사회활동으로 정례화 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광주지방국세청 불자회

안녕하세요.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동호회, 광주지방국세청 불자회입니다.

불교신자임을 내세우지 않는 청내 분위기를 바꾸고자 물밑에 숨어 있는 불자들을 향해 '접수할 물 위로 띄우기 작전' 등 다양한 포교와 회유책(?)을 벌이고 있는 불자회. 국세청 내부 지식관리시스템 커뮤니티에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전국 국세청 불자들에게 부처님 말씀과 불자회 소식 등을 전하고, 때로는 청내 직원들의 불교 성향을 파악을 위해 주차장에 잠입(?)해 차량 내 불교용품 유무를 조사하는 열혈 불

소양을 높이고자 회원 모두가 불자회 내 기초교리 강좌와 무각사 교육 등을 통해 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고 수계를 받았습다. 또한 천수경을 비롯해 반야심경을 자제 강의와 초청강의 등을 통해 공부하고 현재는 유마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회의 자랑거리는 무엇보다도 끈끈한 신심으로 똘똘 뭉친 조직력입니다. 불자회가 하위직급인 실무자들을 위주로 태동된 만큼, 회사업무는 물론 개인적인 애정사 등을 서로 챙겨주며 가족과 같은 정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 결과 11명으로 시작한 회원 수가 현



광주국세청불자회원들이 10월 2일 광주지역 독거노인의 집을 찾아 도배와 가구정돈,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불자 발골에 총력...전원 교리 교육

가족법회·봉사활동으로 '한마음'

자회가 바로 우리 불자회입니다. 이렇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불자회는 지난 2000년 7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터에서 실천하고자 창립했습니다.

현재는 90여명의 회원들이 끈끈한 신심과 가족과 같은 따뜻한 정으로 똘똘 뭉쳐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첫 창립법회를 갖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 중에는 불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불교신자임을 밝히기 꺼려해 처음 신행단체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1년 반동안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4년전 광주지방국세청 전산교육장에서 첫 법회를 봉했습니다. 이후 무각사에서 매월 두 차례 주지 스님을 법사 스님으로 정기법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불교 기본

재 9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커진 것은 불자회 규모만이 아닙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활동 등을 매월 한 차례씩 진행하며,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복지시설 선착공사장 등에서 막노동용 하고 고추밭을 매거나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와 드리는 단순 봉사를 담당해왔지만, 앞으로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도울 생각입니다. 또한 초심 법우들을 위한 불교강좌를 대폭 강화하고, 주말수련회를 비롯한 사찰순례 등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회원 아이들부터 시작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법회와 봉사활동 등을 다양하게 마련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신행복합체'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윤영남 회장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www.15440108.com  
☎ 1544-0108

YABANBOPSEON 야단법석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문의: 050-5844-0108

사원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의: 050-5244-0108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림